



국회의사당 511호, 전화: 02-784-3255, 팩스: 02-788-0270, 문의: 윤희량 비서
홈페이지: <http://www.yajeong.or.kr>, 트위터: @ya_jeong, 페이스북: /yajeong

유성엽 의원, “동학농민혁명정신의 헌법 전문 포함 위해 최선 다할 것”

- 라디오 인터뷰 통해 동학농민혁명정신의 헌법 전문 포함에 대한 의지 밝혀
- 유 위원장, “향후 헌법 전문에 포함시켜 개헌안 완성 될 수 있도록 할 것”

-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민주평화당, 정읍·고창)은 “동학농민혁명정신의 헌법 전문 포함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개헌 시 헌법 전문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 유 위원장은 26일 오전, KBS전주 라디오 「패트론포럼」에 출연해 “헌법은 우리나라의 골격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좌표를 명정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근대사의 출발점이자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시원인 동학농민혁명정신을 헌법에 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동학농민혁명정신의 헌법 전문 포함 의미를 역설했다.
- 이번 정부 개헌안에 동학농민혁명 정신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한 질문에 유 의원은 “청와대와 국회 개헌특위 등에 공식, 비공식 루트로 여러 차례 요구를 해왔지만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아 안타까움이 크다”며, “동학농민혁명의 발원지였던 정읍·고창이 고향이고, 이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더욱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 이어 24일 서울 종로 네거리에 전봉준 장군 동상이 설치된 것과 관련해서는 “2004년 동학특별법 제정으로 법적인 복권이 이뤄졌고, 지난해 말 특별법 개정으로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데 이어 전봉준 장군 동상 건립까지 완료 되어 상당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동상 건립은 전봉준장군과 동학의 정신이 시민들의 삶의 현장에 다시 살아난 매우 역사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동학농민혁명 참가자를 포함하는 독립유공자법 개정 등 관련 법률을 바로 잡는 것이 앞으로 동학농민혁명정신 선양을 위해 필요

한 일”이라고 말했다.

-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집강소가 갖는 의미를 묻는 질문에는 “전봉준장군이 이끄는 동학농민혁명군이 설치한 집강소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행정을 꾸린 사실상 대한민국 최초의 지방자치기구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며, “지방분권이 오늘날 시대정신임을 고려할 때, 123년 전 동학농민혁명이 얼마나 선구적인 사상을 갖고 있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설명했다.
- 마지막으로 유 위원장은 헌법전문에 동학농민이 왜 포함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거듭 “우리나라 독립운동과 민주주의 역사의 가장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동학농민혁명”이라며,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출발점인 동학농민혁명정신을 헌법에 담는 것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고, 나라의 방향을 바로 잡을 일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헌법 전문에 반드시 포함시켜 개헌안이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